# 제 94호 동기 부여하기 2

"졸업에 필요한 과목은 아니지만 무척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이 강의는 한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내가 이 과목에 비록 C 학점을 받았지만 이 과목 들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강의로 인해 무척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열의에 감동 받았다. 그래서 이 과목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하였고, 만족한다."

학생들이 한 강의 평가 샘플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동기 유발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공부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성적순으로 가게 된 학교, 잘 알지 못하고 택한 학과)가 있는가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집안 형편, 대인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것(부족한 기초 실력, 성공에 대한 불안감)과 일시적인 것(이성 교제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이유만 다양한 것이 아니고 동기 부족으로 인한 결과 또한 다양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기 결여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학생들은 아예 강의실에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더라도 책상에 엎드려 잡니다. 초기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강의실에 얌전히 앉아 있기는 하나 눈에 초점이 없고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동기 부족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가 복잡할수록 응급 교수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동기 유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기에 대한 원리는 많은데 그 중 매슬로의 원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Harper and Row, NY, 1970).

가장 기본으로는 물, 공기, 음식 같은 생존 욕구,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남으로부터 인정 받고자하는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중감을 갖고자하는 욕구,
그리고 제일 최상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을 하고자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첫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학과 전공을 정하였고,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의 적성을 따집니다. 아무리 장래가

밝은 전공이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시하다 하고, 재미가 없으면 공부하기 싫다고 합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되시겠지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배가 부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꼭 공부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기 싫은 공부를 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은 전공을 배워야 할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진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존경받는 사회인이 될 것이다"란 말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첫 세 가지 욕구를 겨냥한 격려, 충고, 조언, 경고, 훈계 등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나 생기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한테는 자기 존중감과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 동기 유발이 됩니다. 맨 위에 소개한 학생들의 강의 소감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이나 취업과는 무관하더라도 강의로 인하여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 **조벽**, 2000